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제580호

지면안내

03

사회
허무맹랑한 제도에 청년 겨는 '강동전세'

04

기획
깊어진 고립의 늪에 빠진 청년들

05

사람
하나의 세상을 지우는 일, 유품정리사

08

광고
제53기 수습기자 모집

기숙사 불만 지속...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

기숙사 입주생(이하 기숙사생)을 중심으로 본교 기숙사 내 다양한 사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사 결과 기숙사생들과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 내부 규정 관련 사항 ▲취사 시설 미비 ▲시설 낙후 등을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손꼽았다. '기숙사 내부 규정 관련 사항' 및 '취사 시설 미비'는 상상빌리지를 포함한 모든 기숙사가 공통으로 지닌 문제점이며, '시설 낙후'의 경우 상상빌리지는 거의 해당하지 않았으나 우촌학사와 삼선학사 거주자에게 두드러지게 토로되는 고충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검토 후 가능한 부분에 한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기숙사 내부 규정은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생활관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금지 안내'의 '밖'항은 '주류(빈병 포함)'의 반입 및 음주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기숙사생의 경우, 벌점 20점 부과로 강제퇴사 조치가 이뤄진다. 더불어 '상벌규정' 속 '벌점 기준표'를 살펴봐도 생활관 내에서 음주 및 주류를 보관하는 자는 강제퇴사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상상빌리지 재활용장 수거함에서는 실내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다수의 빈 맥주캔이 발견된 것이다.

실제 상상빌리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증언은 음주 관련 규정 위반이 대수롭지 않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강연우(ICT 1) 학생은 “분리수거장에서 쌓여 있는 맥주캔을 직접 목격한 적 있다”며 “주위 기숙사생들에게 전해 들었을 때도 술을 꽤 자주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목격에 따르면, 외부인 숙박이 금지된 기숙사의 규정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외부인 숙박은 기숙사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난 9일 상상빌리지 행정실에서도 외부인을 숙박시킨 자는 벌점 20점 부과로 강제퇴사 조치가 이뤄짐을 안내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강 학생은 “외부인 숙박의 경우, 꽤 많이 발생한

다”며 “기숙사생이 외부인을 기숙사에 숙박 시키려고 시도한다면 가능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우촌학사에 거주했던 이현서(사회과학 1) 학생 역시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아 출입카드만 소지한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인 출입을 확인하기 위한 '기숙사 출입 시 신분증 검사'나 '예고되지 않은 방 점검' 등의 방식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기숙사생의 사생활 보호와 규정 준수 양립을 지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기숙사생들의 개인 생활 역시 존중되어야 하기에 일일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강제퇴사 이외에 기숙사생들이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 혹은 징계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취사 시설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상상빌리지의 경우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이 갖춰진 상태지만 그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상상빌리지에 거주하는 익명의 학생은 “전자레인지가 3개만 존재해 대기줄이 생겨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면서 “개수가 늘어나거나 층별로 구비가 된다면 사용이 편리해질 것”이라 예상했다.

반면, 우촌학사 및 삼선학사의 취사실에는 전자레인지만 구비돼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방학을 제외하고 우촌학사에 거주 중인 익명의 학생은 “우촌학사는 학교 내부에 위치한 기숙사가 아니기에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운 편”이라며 “인덕션 등을 반입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편이라 전자레인지로 취식 가능한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먹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삼선학사의 경우 방마다 냉장고가 존재하는 타 기숙사들과 달리 기숙사 내 공용 냉장고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삼선학사에 거주하는 김지우(문과 1) 학생은 “삼선학사는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기숙사생이 거주하지만 지하에 위치한 공용 냉장고를 모두가



▲상상빌리지 재활용장 수거함 속, 다 마신 맥주캔이 있다.

사용하고 있다”며 “냉장고 개수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비교적 많은 구성원이 사용하다보니 관리 역시 어려워 냉장고 자체를 쓰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본부 측은 각 우촌학사 및 삼선학사 등 기숙사별로 적절한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학기에 취사 시설이 미비한 우촌학사에 추가 설비를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환경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삼선학사의 경우 애초에 건물 구조상 원활한 통풍이 어려워 취사 시설의 지원이 어렵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박 팀원은 “삼선학사의 경우 취사 공간을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기숙사생들의 음식 보관을 돕기 위해 공용 냉장고의 추가 비치는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우촌학사와 삼선학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에 완공된 상상빌리지에 비해 건물 자체가 낙후된 것이다. 우촌학사는 2011년, 삼선학사는 2005년 완공돼 현재까지 기숙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 학생은 “장관으로 된 바닥에 곰팡이가 핀 경우가 더러웠고, 세면대가 막힌 적도 많았다”며 “기숙사 자체가 오래됐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삼선학사에 거주했던 이우진(사회과학 2) 학생 역시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고, WiFi 공유기는 한 학기 내내 고장 난 상태였다”며 “수리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답변이 지연돼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문제가 있을 시 요구하면 지원 가능한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팀원은 “학교 측 역시 요청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기숙사생들이 청소 등의 시설 관리에 함께 힘써준다면 원활한 기숙사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선학사의 경우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실제로 생활관 홈페이지 속 '시설안내'에서 삼선학사만이 건물 및 방의 내부 구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우진 학생은 “처음 입주할 당시, 기숙사를 찾는데 어려웠다”며 “기숙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입주 전부터 불안함을 느꼈었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각 기숙사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자료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기숙사 사용에 대해 대학본부는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팀원은 “통학이 어려운 학생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기숙사 지원은 항상 진행하고 있으니 거주 학생들 역시 생활하는 방을 자신의 방처럼 여기며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대면수업 본격화, 학내 안전 실태는?



▲미래관 3층 창의열람실 내부, 1998년에 제조된 소화기가 놓여 있다.

이번 학기부터 대면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학생이 학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학교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할까. 대학 내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본교 역시 지난 4월 공학관에서 경미한 화재 사고가



사진: 김지윤 기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본사는 우리대학 안전에 관한 사안을 ▲안전교육 ▲안전 관련 내부 규정 ▲안전설비로 나눠 점검했다.

먼저 안전교육의 측면에서는 규정상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등을 시행해야 하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부터 이뤄지지 못했다. 본교 규정 중 하나인 「대학안전관리규정」에도 문제는 존재했다. 이미 폐지된 과거의 규정이 현행 규정 내에 인용되거나, 조항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일부 발견됐다. 안전설비 관리 역시 완벽하지는 못했다. 지난 17일 학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설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소화기의 사용 연한이 지나 있는 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안전교육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내부 규정은 대학안전관리규정이다. 당규 제18조에서는 ‘교내 구성원은 본교에서 시행

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본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020년 1학기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같은 규정 제20조에는 ‘본교의 구성원은 주관 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다. 다만, 성북소방서의 권고로 기숙사 학생에 한해 비대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이 1학기에 실시되기는 했다. 본교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오윤권(자산관리팀) 팀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전체 학생 대상의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매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는 대면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학안전관리규정 일부에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했다. 제20조에서는 ‘본교 구성원은 본교 방화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교의 현행 규정상 ‘방화관리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팀원은 “현재는 방화관리규정 대신 소방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며 “문구 수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28조에서는 ‘소화용기구 설비는 각기 위험물의 소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적절할’ 비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오 팀원은 “소화기의 거리 등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소방 관련 법령이 학교 내부 규정보다 앞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2면에 계속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소화기·자동심장충격기 등 안전설비 관리 미비

대학본부 “매일 점점 어려워...발견 즉시 시정 조치 중”

사용 연한 초과한 소화기 발견

학내에 위치한 안전설비 관리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함으로써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다. 본교 역시 규정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본교의 일부 소화기 관리에서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용 연한이 제조연도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17일 본교 건

물 전체를 본지가 점검한 결과 이를 초과한 소화기가 일부 발견됐다. ▲우촌관 5층 1개(제조연도 2011) ▲진리관 1층 1개(제조연도 2011) ▲공학관 A동 3층 1개(제조연도 2001) ▲공학관 A동 1, 2, 5층 총 4개(제조연도 2002) ▲공학관 A동 1층 1개(제조연도 2011) ▲공학관 A·B동 5층 연결통로 1개(제조연도 2001) ▲공학관 B동 6층 1개(제조연도 2002) ▲창의관 3층 1개(제조연도 2003) ▲미래관 3층 창의열람실 내부 1개(제조연도 1998)가 목격됐으며, 안전핀이 제거된 소화기도 학생관 입구와 공학관 A·B동 5층 연결통로에서 각각 1개씩 발견됐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화기 사용 연한이 초과되면 소화약제가 굳거나 용기가 부식돼 잘 방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핀이 뽑힌 상태로 방치되면 소화약제를 방출시키기 위한 가스가 누출돼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내 소화기 현황에 대해 오윤권(자산관리팀) 팀원은 “6개월에 한 번씩 있는 종합정밀점검, 한 달에 3일간 외주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전체 점검 등을 통해 연한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고 있다”면서도 “1,000개가 넘는 모든 소화기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미래관 3층 창의열람실 앞, 쓰레기통이 방수용기구함을 막고 있다.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도 눈에 띄었다. 연구관 1층 상상파크에는 화재 시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책걸상이 놓여 있었다. 방화셔터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하강하는 벽으로, 불의 확산을 막는 목적의 설치물이다.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물건이 비치돼 있을 경우, 화재 시 셔터 하강을 방해해 불을 막지 못하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래관 창의열람실 앞 방수용기구함은 쓰레기통으로 가려져 있었다. 방수용기구함은 화재 시 진압을 위해 소방관이 사용하는 호스를 보관하는 함이다. 이에 대해 오 팀원은 “수시로 해당하는 부서에 주의를 주고, 점검 또한 이뤄지고 있다”며 “개개인이 무심코 방화셔터 하강 위치 등에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인력 확충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심장충격기 비상망치 부재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보관함을 깨는 비상망치가 없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AED는 전류를 통해 정지 상태의 심장이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기구다. 학내에 설치된 AED는 손으로 쉽게 깰 수 없는 함 안에 들어있고,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망치가 함께 비치돼 응급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탐구관, 공학관 A동 1층, 미래관 지하 1층과 2층, 상상관, 상상빌리지 1층에 위치한 AED에는 망치가 부재돼 있지 않았다. 특히 탐구관 1층의 AED



▲탐구관 1층 엘리베이터 앞,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벽에 막혀 있다.



사진: 정상혁 기자



▲연구관 1층 상상파크 계단 옆,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책걸상이 비치돼 있다.



사진: 정상혁 기자

는 마주 보는 방향이 아닌 벽 쪽을 향하고 있어, 설비 자체를 반대편으로 돌리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AED 설치·관리 업체와의 연락은 건강관리실이 담당한다. 권후관(건강관리실) 실장은 “처음 AED를

설치할 당시에는 망치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기 때문에 도난으로 추측된다”며 “망치를 구매해 2학기 개강 시점까지 비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본교 웹메일 저장용량, 무제한 사용 불가

본교의 구글 드라이브를 포함한 구글 웹메일 서비스의 저장용량이 오는 9월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교내 구성원 모두 용량 제한 없이 웹메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재학생은 5GB, 졸업생은 0.5GB, 재직 교직원 30GB, 퇴직 교직원 5GB로 용량이 제한된다. 제한 용량을 초과한 교내 구성원은 계도기간인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용량을 감축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도 용량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계정은 잠금 상태가 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구글이 발표한 정책에 따른 결정으로, 구글은 2022년부터 각 대

학의 드라이브를 비롯해 지메일, 포토 등을 포함한 저장용량을 100TB로 제한했다. 유영기(정보화팀) 과장은 “구글에서 학생 1인당 5GB를 기본 정책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타 대학의 제한 정책 역시 참고해 교내 구성원의 용량 한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량 초과자는 단계별로 용량을 정리하는 과정을 10월까지 진행하게 될 계획이다. 이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는 계정이 잠금된다. 해당 사용자는 11월 초 영구 삭제 이전까지 본교의 정보전산원에 계정의 잠금 해제를 요청해 용량을 정리해야 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교는 구글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저장용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유 과장은 “추가 금액이 상당해 타 대학들의 유료 전환율이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도 최대 용량이 1인당 20GB 정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불편하겠지만 교내 전체 용량 축소를 위해 초과 용량 사용자의 경우, 기한 내 메일, 드라이브 및 포토 등을 필히 정리 및 삭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 신설

오는 9월부터 중소기업 계약학과인 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가 IT공과대학 소속으로 신설된다. 해당 학과는 지난 4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2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해당 학과 입학자는 3학년으로 편입해 2년 동안 4학기제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밟는다. 또한 해당 학과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는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설계, 구축 및 운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제조 기

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학과 소속 학생은 기술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기초로 해 빅데이터·가상현실을 활용한 스마트품질,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시스템과 관련한 이론 및 실습을 학습하게 될 계획이다.

한편, 운영 기간 이후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약에 따라 운영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학과에 대해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향후 신규 계약학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상상관 지하 2층 ‘상상베이스’ 개방

오는 10월 24일 상상관 지하 2층에 부설된 (가칭)상상베이스가 개방된다.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조성되는 이 공간은 상담 및 그룹스터디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다. 상상베이스는 ▲그룹존 ▲개별존 ▲그룹세미나룸 ▲프리존 ▲문서작업

대로 구성될 예정이며, 기존 계획과 달리 학생상담센터는 이전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상담센터의 상담 공간이 부족할 경우 상상베이스를 상담 공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그룹존은 그룹스터디를 위해 마련됐다. 이 공간은 총 8개실로 구성되는데, 그 중 4

개실은 가벽을 제거하면 이웃한 1개의 방과 통합할 수 있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총 6개실을 사용할 수 있다. 개별존은 개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술정보관의 집중열람실과 달리 소음이 허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룹세미나룸은 가장 넓은 공간으로, 발표와 토론 등을 위해 구상됐다. 프리존은 대기 공간 및 휴식 공간이며, 문서작업대에서는 문서작업 및 출력이 가능하다.

해당 공간의 이름은 ‘상상관B2층 종합공간 명칭 공모전’을 통해 공모 받았다. 최우수상의 명칭은 ‘상상베이스’이며, 총 4명이 공동 수상했다. 우수상은 총 8명, 장려상은 총 4명이 공동 수상했다. 시상금은 기존에 계획된 금액대로 공동으로 수상하는 인원에 관계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도영(자산관리팀) 차장은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최우수상을 받은 명칭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사진 출처: 자산관리팀

▲상상관 지하 2층에 조성되는 (가칭)상상베이스의 예상 조감도



사진: 김지윤 기자

새로운 여정의 시작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19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은 총 479명으로 학과(부)제 졸업생 170명과 트랙제 졸업생 309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우촌상 1명 ▲이사장상 1명 ▲성적우수자상 51명 ▲학과추천 공로상 40명 ▲특별공로상 17명 등 총 110명이 수상했다. 이사장상을 수상한 정호재(기계 4) 졸업생은 “재학 시절 학업에만 몰두했더니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며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졸업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졸업 소감을 전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허무맹랑한 제도에 청년 겨는 '강통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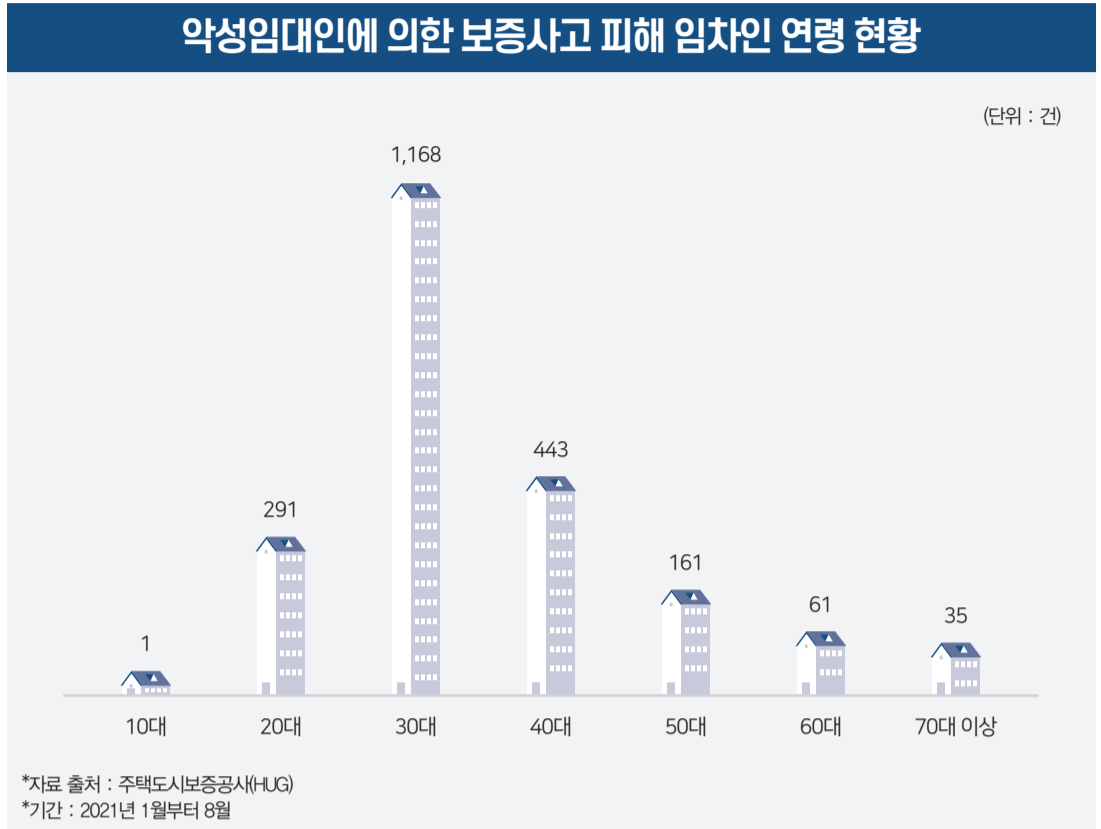
강통전세 피해 청년 속출
보증보험 가입조차 어려워
전세사기 관리 기관 필요

최근 전세보증금 문제로 떠난 진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른바 '강통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에 따라 지불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속이 텅 비어 알맹이가 없는 '강통'처럼, 강통전세는 전세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에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세 계약을 통칭한다.

이러한 계약의 사례는 개별적으로는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을 때 발생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강통전세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본다. 전세가율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등락 폭이 크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대략 50~60% 정도다. 즉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주택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으므로, 전세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그에 상응한 금액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애초에 큰 금액을 사기치기 위해 기획된 강통전세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강통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전세가율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도시연구소가 공개한 「2021~2022 전국 공동주택 단지별 전세가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에 거래된 전세집의 전세가율은 평균 90.9%였으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은 전체 거래량의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영(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것은 매매수요가 전세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 야기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셋집이 부족해지면 전세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보다 더 높으므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높은 전세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강통전세 문제에 청년층이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악성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 피해 임차인 연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보증사고 피해자는 10대 1건, 20대 291건, 30대 1,168건, 40대 443건, 50대 161건, 60대 61건, 70대 이상 35건으로 드러났다. 보증사고 피해자 중 대부분은 청년인 셈이다. 이 교수는 "전세 계약은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소한 계약이 아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 법적인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독립하는 대부분의 청년이 이러한 부분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거주 형태에 따라서는 청년층은 강통전세의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다. 청년층은 대체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데, 바로 이 다세대 주택이 강통전세의 주요 표적이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발행한 「서울시 세대별 1인 가구의 주거 특성 분석 및 정책제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층 주거 특성은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단독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달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기획 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당한 전체 가구 495명 중 다세대주택(251명)이 절반을 넘었으며, 오피스텔(108명), 아파트(79명), 기타(38명), 단독주택(19명)이었다. 서원석(중앙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통전세는 주택 가격이 저렴한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다. 아파트나 고급 빌라에서는 발생할 확률은 비교적 적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강통전세 피해자가 전세사기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고의성이 명확히 증명돼야 입증되는 사기 범죄의 특성상 강통전세 피해자가 법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전세 계약 시점에는 집주인이 보살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어쩔 수 없는' 파산으로 변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면 현행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강통전세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지만 확인이 쉽지 않다"고 설명

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사기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형사처벌 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재판까지 진행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조건 문턱이 높아 모든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보다 많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그 일례이다. 보증보험은 강통전세 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전세금보다 적기에 보험사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가입이 거절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율이 치솟는 마당에 애초에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초월한 부동산도 속출 등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아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므로, 이 정책이 부동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태욱(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임대주택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정한 가입조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전세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 보증을 제공한다면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국가 돈을 나눠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험의 가입조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입조건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를 표한다. 모든 피해자를 구제할 만큼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곤(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모든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면 보험사에서도 적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시켜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해결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지규현(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HUG가 대신 돌려줘야 하기에 집주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하지만, 사기를 입는 집주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재가 존재해야 1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서원석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동산 전문 부처 기관을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현재 강통전세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정 이용 발생 여지가 있는 경우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계약하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 선순위 임대차 현황 등을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확인시키는 제도를 통해 집주인의 채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서진형(경인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는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재산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 교수는 "물건을 거래하는 데 있어 공인중개사에게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을 수 있게 제한하는 법률이 마련돼야 함을 주장한다. 이 교수는 "임대인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법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부동산 계약에 대한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원석 교수는 "대부분의 20~30대는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이 집을 구할 때는 개인적으로 해당 건물의 정보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 교수는 "주로 청년의 지식 및 경험의 부족, 불실실한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강통전세 피해가 일어난다. 임차인이 집을 계약하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숙지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순위 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논쟁 불거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향방은?

'마트 쉬는 날'. 검색창에 '마트'를 검색하면 보이는 연관검색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 10년 차, 최근 이를 둘러싼 시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가 신설한 소통 창구인 '대통령실 국민제언' 홈페이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폐지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및 노동자 등 대형마트를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가 충돌을 빚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의 휴업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한 달에 이틀은 휴업해야 한다. SSM은 대표적으로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을 말하는데,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작고 점포가 많은 슈퍼마켓의 형태를 띤다. 규제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대형마트와 SSM이 유통업계를 과점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형마트·SSM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됐다.

대형마트와 SSM을 운영하는 대기업은 해당 규제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가뜰이나 유통시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판매 비중이 큰 상황인데, 오프라인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SSM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규제라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심판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 한국제인스토어협회의 고상범(한국제인스토어협회) 차장은 "규제가 중소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통계가 이미 많다"며 "효과가 없고, 소비자가 불편하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가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만 있다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 대다수는 규제 폐지나 완화를 원하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과반의 응답자가 '규제 완화(67.8%)' 의견을 보였다.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 측은 태생적으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거대 자본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규제가 존재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지난 10일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소상공인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온라인 유통시장의 독점화에 이어 오프라인도 대형마트의 독점 질주가 계속돼 유통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형마트 노동자 단체 역시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규제 폐지를 반대한다. 배준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 종업원)불규칙한 업무 일정 속 그나마 규칙적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며 "폐지 시 일과 가정의 양립 또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 관점에서만 운영한다면 대형마트 24시간 영업 등 끝이 없다"며 "노동자 관점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유병국(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소상공인과 대형마트는 유통 경쟁상태가 아니고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다"며 "서로 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방법보다 각 유통 주체마다 품목이나 구역을 할당하는 제도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혜미(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심판회의를 신설해 지난 4일 해당 규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수렴했으나, 관계부처와 각 당사자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후속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일단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 대상이 됐지만, 다양한 경제 주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성훈 교수는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비행 청년

- 비행(飛行)할 그날을 위해 -

새싹이 파랗게 돌아오는 봄철이라는 '청춘'. 안타깝지만 모든 청년이 그 말의 의미대로 젊음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에서 등한시되고 있는 소외 청년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외된 청년의 문제를 과연 개인의 문제, 비행(非行)으로만 다뤄야 할까.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조명해야 할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소외 청년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飛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 속 소외된 청년들이 '비상'하기 위한 발판을 알아보자.

김기현 기자 kimgihun30@gmail.com

깊어진 고립의 늪에 빠진 청년들

흔히 주위에 아무도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두고 '고독사'라 말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즉 고독사는 하나의 사인(死因)이 아닌 과거에 비해 여러 이유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사망한 뒤, 그 시신이 일정 기간 흘러 발견된 죽음을 지칭하기 위해 고안된 단어다.

현재 국내에서는 '무연고(無緣故) 사망자'를 통해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크게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발생한다. 무연고사는 의미적으로 고독사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고독사한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 인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고독사 발생 현황을 유추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고독사했다고 추정되는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원익(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9월 공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08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3,052명으로 52%가량 증가했다. 김경일(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무연고사에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행위는 관계가 단절돼 죽음 이후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는 고독사의 의미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 특히 시신 인도 포기 무연고자가 증가할 경우 고독사 역시 증가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중에서도 청년 고독사는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 진입을 시도하는 청년의 관계가 단절된 점도 문제인데 이들이 사망한 뒤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가 병들었다는 전조"라고 밝혔다. 임명호(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

과) 교수는 "청년은 노인에게 비해 신체적 활동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정체성의 정립과 지속적인 뇌 발달의 측면에서 심리적·신체적으로 취약하다"며 "청년 고독사가 노인 고독사보다 심각한 측면도 있으므로 노인과는 별도의 정책 제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고독사의 특징은 가파른 증가세와 사인 중에 자살 비율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63명이었던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는 102명으로 62%가량 증가했다. 더불어 자살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 (시사직격)의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 2021 청년 고독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에서 고독사한 30대 이하 청년은 전체 고독사의 약 10%였으나, 이중 자살로 추정되는 20대는 40.9%, 30대는 41.2%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정 교수는 "이러한 청년 고독사는 어쩌면 개인의 자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청년층의 1인 가구 증가가 고독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18-34세 청년은 5.7%였다.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앞으로 혼자 사는 청년들이 더 많아진다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발견되는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년 고독사의 다른 원인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도 빠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경쟁'으로 발생하는 취업난에 주목했다. 최명민(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관통하며 살아온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기적이어야 하고 경쟁

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인식이 체화된 세대"라며 "청년의 고립을 개인적인 외로움으로 보기에 고립 문제가 크다"고 해석했다. 청년들의 경제 사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2018년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학자금 목적 제외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에 따르면, 학자금 목적을 제외한 대학생의 대출액은 2014년 말 6,193억 원에서 2018년 7월 말 1조 1,00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486개의 계좌에서 발생한 21억 원의 연체액도 2,136개의 계좌, 55억 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정 교수는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가 나아가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의 의지박약이 아닌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위험이 구조화가 되면서 진입이 어렵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년 고독사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는 관련 법안의 개선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예방법에 적시된 고독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의견이다. 법조문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기간을 '일정한 시간'으로 모호하게 표기하고 있어 명확하게 자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김 사무국장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고독사의 정의에 대한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야 한다.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기준에 따른 현황 파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고독사의 정의에는 '관계망 단절', '홀로 임종', '시간이 흐른 뒤'라는 조건이 붙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조차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어 법적 정의에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고독사예방법 자체의 목적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남아있다. 법안의 목표가 고독사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인지, 고독사 이전의 고립된 삶을 예방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고독사예방법이 고독사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고독사 이전에 외로운 삶을 살지 않도록 예방하는 비교적 큰 의미에 초점을 둔 법안인지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이 고독사 이전 고립된 삶인 '고독생'을 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김 사무국장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청년 세대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고, 일자리에 한정된 정책만 지원받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는 근로 능력이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청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중 청년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청년 고독, 청년 자살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고용센터의 기능을 확장하는 등의 방안도 제사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는 고용센터의 역할이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실업급여 지원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처럼 사례관리를 통해 철저하게 청년들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청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에 정책 개선과 더불어 주위의 관심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청년 고독사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돼 가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며 "외로움과 고립도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 사람은 각자 홀로 살아갈 때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외로움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 연구위원은 "사회가 개인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나 공동체의 형태가 변화될 것이다. 고독사 문제에 대해 공공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어디에 알려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답답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한성대신문은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소중한 제보로 보다 나은 한성대신문을 만들겠습니다.

Tel : 02)760-4186

Fax : 02)760-4389

E-mail : hansungnews@gmail.com

KakaoTalk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Facebook : @hansungpresscenter

<편집자주>

1인 가구가 700만 명을 돌파한 시점, 이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정도는 10명 중 4명에 육박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고독사 현장 중에는 악취나 부패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가족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때에 고독사가 발생한 집은 누가 정리할까? 여기,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기고 간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 특수청소전문업체 '바이오해저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새별(46) 대표다.

그를 만나기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로 향했다. 처음 그가 유품정리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서울에 바이오해저드 본사의 뿌리를 내렸었다. 그러나 그는 전국팔도를 돌아다니며 유품 정리 작업을 진행한다는 직업적 특징을 살리기 위해 전국 어디로든 이동하기 유리한 청주에 터를 잡았다.

2시간을 달려가 만난 김새별 대표는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나'보다 '가족', '나'보다 '어려운 이웃', '나'보다 '젊은이'. 헌신을 신념으로 살아가는 김새별 유품정리사는 매일 같이 새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정리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이었다.

박희진 기자 fur1120@naver.com



사진: 김지윤 기자

하나의 세상을 지우는 일, 유품정리사

특수청소전문업체 바이오해저드 김새별 대표

죽음, 그 옆에서 일하다

김 대표는 고독사나 자살, 살인 사건 현장의 특수청소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통 이러한 현장은 유족이 청소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수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루, 이를 정도 지난 현장은 그나마 악취가 덜 하지만, 시간이 경과돼 부패가 진행된 현장은 전문가가 아닌 이가 정리하기 힘들다.

“사람은 보통 좋은 기억보다 좋지 않은 기억이 오래가요. 유족들이 사건 현장을 직접 정리하면서 좋지 않은 기억을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폐기할 물건은 폐기하고, 유품을 정리해 유족에게 전달하는 일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유품정리사를 지망한 것은 아니었다.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금융업에 종사하려던 꿈이 가정사로 인해 좌절되고, 인력 사무실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성실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다른 회사에 채용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지도사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친구의 염(恨)을 정성스럽게 해주는 장례지도사의 모습을 보고 타인을 위한 직업을 꿈꾼 것이다. 장례지도사는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 절차를 주관하는 일을 한다.

장례지도사로 10여 년간 일했던 그에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

다. 우연히 한 고객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달라는 의뢰를 청한 것이다. 당시엔 외부인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개념이 확산되기 이전이었다. 직접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의 부탁이었다. 그렇게 첫 번째 유품 정리를 진행했고 그 날 겪은 기억을 바탕으로 블로그에 게시글을 작성했다. 운명처럼 그 블로그의 내용을 보고 또 다른 유품 정리 의뢰가 들어왔고, 두 번째 의뢰까지 마친 후 그는 마침내 유품정리사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결심을 마친 그는 홀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국내 최초의 특수청소전문업체인 '바이오해저드'다.

“누군가가 꼭 해야 한다면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에 혼자 회사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해매기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함께 일하던 친한 동료들이 쉬는 날 회사 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어요. 체제가 완전히 잡히지 않아 해매다가 직원을 구하고 본격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죠.”

유품정리사 업무에도 난관은 존재한다. 유품정리사로서의 고충은 '냄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냄새는 비닐로 꽂꽂 싸매도 흘러나온다. 냄새를 한번 맡고 나면 여기도, 저기도 냄새가 남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유품 정리를 마친 후에는 몸에 냄새가 배어 다른 일정을 잡지도 못한다. 하루 종일 청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식사는 필수적이지만 냄새 때문에 식당의 거절을 받기 일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소하는 집의 대문 앞에 앉아 식사를 해결하는 처지다. 그럼에도 그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에요. 하나의 세상을 없애버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집에 누군가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게 청소하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 하지만 안타깝기도 한 마음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죠.”

죽음과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도 변했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과거에는 세상을 떠나면 거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한 아픔이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는 말이다. 더불어 김 대표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기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인생이며, 죽음은 그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떠나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고독사가 없는 세상을 위해 나아가다

김 대표는 유품 정리 현장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 '바이오해저드김새별'도 운영하고 있다. 고독사 현장 영상이 주를 이룬다. 그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서였다. 이는 한 청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계기로 작용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그 청년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 근무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조차도 없어 실의에 빠진 채 허영없이 원룸에 누워 있다 자살에 관련된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했고, 그러던 중 김 대표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온 청년은 울면서 도와달라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이 엉망이니 정리해주시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지금 어디서 지내시냐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분가로 가서 지내시라고 말했죠. 계속 설득하니 간신히 분가로 내려갔어요.”

그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년 고독사는 다른 고독사 사례들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살한 청년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기 전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고인이 자신의 친한 친구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후, 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친구들은 바로 고인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 고독사는 다른 연령대의 고독사와 비교했



사진 출처: '바이오해저드김새별' 유튜브 채널

▲김새별 대표와 바이오해저드 직원이 고인의 침대 프레임을 정리하고 있다.

을 때 발견되는 시기가 매우 빠른 편이다. 청년 고독사의 현장은 부패가 심하거나 악취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고인의 부모가 떠난 자식이 남기고 간 자리를 직접 정리하기 힘들어 의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는 청년의 죽음은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된 경우가 다수라는 입장이다. 그가 만난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젊은 고인의 유품은 새로 사다놓은 100장의 이력서 봉투였다. 더불어 고인의 방에는 취업 및 면접 관련 서적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후 청년 고독사 현장에 대한 일감 수가 늘어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는 일자리에 대한 과도한 경쟁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여긴다.

“옛날처럼 적금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쓸 곳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으니 빛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와중에 사회적 시선도 신경 써야하니 스스로 위축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도 꺼려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다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무료 청소도 진행한다. 고독사로 떠난 40대, 50대의 자식은 사회로 막 뛰어드는 20대인 경우가 다반사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장례에 비해 고독사의 장례 비용이 2배 가까이 비싸진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고독사로 사망한 부모를 둔 자식에게 청소 비용 만큼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같은 맥락으로 김 대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을 준비 중이다. 그가 준비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 '세이브더라이프'는 고독사 현장에 대한 무료 청소뿐만 아니라, 고독사를 예방하는 활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타인을 도울 때 느낄 수 있는 뿌듯한 감정이 좋아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 자식에게도 굉장히 당당하고, 스스로가 괜스레 멋있게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청년들에게 답대해지길 바란다. 누구보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세대라는 사회적 시선이 무색하게, 직업적인 면에서는 답대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이어 직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강조한다.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중요해요. 자신의 전공 경험이 정말 재밌다가도 막상 일을 하면 안 맞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것저것 해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뭐든지 도전하고,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염: 시신을 수의로 갈아입힌 다음, 베나 이불 따위로 싸는 것



사진 제공: 김새별

▲성수동에 위치한 고시원의 고독사 현장이다.

수세를 공세로, 한산 속 승리의 공식

〈편집자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 개봉 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극중 관객 대다수의 초점은 거북선에 쏠려있지만, 사실 이날 승리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요소가 일조했다. 500여 년 전, 한산도에는 어떤 과학적 요소가 숨어있었을까?

한 발 앞선 전쟁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일본 열도를 하나로 병합한 후 조선을 침략하는 상황이었다. 전국을 하나로 통일한 후 충분한 병력을 지니고 있던 왜군의 전쟁 방식은 백병전이었다. 적선의 배 위로 올라가 조선군과 육탄전을 벌인 것이다. 당연하지만 조선군이 기존에 쓰던 배는 갑판이 노출된 구조이므로 적군이 쉽게 넘어올 수 있어 일본의 이러한 전략에 취약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바로 거북선이다. 거북선은 대표적 특징인 닫힌 지붕 개관으로 왜군의 배가 근접해도 백병전을 막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 강희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연료추진연구본부) 본부장은 “거북선의 구조적 특징으로 배가 서로 붙었을 때 적선으로 타고 넘어가는 백병전을 선호했던 왜군의 전쟁 방식은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선박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른 상이한 견고성 역시 전투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적송, 왜군은 삼나무가 많이 자라는 환경이었기에 배의 주된 재질은 이를 따라갔다. 삼나무보다 두께와 무게가 월등했던 적송은 우리나라가 전투에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물리적 이점을 만들었다. 제장명(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소장은 이를 “재질 차이가 배의 견고성에 차이를 만들었다”며 “화포 발사 시 반동력 흡수와 배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질 이외에도 배의 설계 방식 역시 견고함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의 판옥선과

거북선은 짜맞춤 구조를 통해 제작됐다. 판옥선은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과 더불어 사용된 전투선으로, 방향 전환에 용이한 평평한 배밀과 각 배의 장수가 진두지휘할 수 있는 최상층의 판옥(옥상)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짜맞춤 구조는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가 결합하는 제작 방식이다. 못 역할을 하는 나무 부품과 함께 각 부품을 덧대 견고성을 높인 것이다. 쇠못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초기에는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어 틈이 보이지만, 이는 나무가 물에 불어 날수록 빈공간이 메워져 단단해졌다. 반면 왜군의 배는 쇠못을 사용해 배를 조립했기에 시간이 갈수록 부식돼 활용 기간이 짧았다. 홍순재(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배의 주재료인 소나무가 두껍고 튼튼한 것은 물론,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가 맞물려 연결되는 구조는 강도 높은 배를 만들 수 있는 원리였다”고 밝혔다.

보이지 않는 무기

조선군이 적에게 피해를 주는 주요한 방법은 화포를 통해 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적선이 무력화된다면 병력의 열세와 무관하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러한 전략이 조명 받았다. 당시 주로 사용된 화기(火器)인 현자총통과 황자총통은 조란탄 등을 포탄으로 사용했다. 조란탄은 지름 약 2.5cm 크기의 산탄(霰彈)으로, 돌과 철 등으로 제작돼 납을 씌운 것이 특징이었다. 조란탄을 비롯한 당시 포탄은 화약을 통

한 폭발을 이용하는 현대 포탄과 달리 물질에 닿아 직접 충격을 주는 방식이었다. 화약의 폭발이 아닌 물리적 충돌 자체를 통해 피해를 준다는 특성상 운동에너지가 강할수록 그 피해량 역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것이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불리는 $F=ma$ 로, 질량(m)과 속도(a)를 곱한 것이 운동에너지(E)라는 공식이다. 즉 유효한 파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중량과 속도를 충족해 운동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강 본부장은 “화약 폭탄 역시 사용됐지만, 당시 문헌 기록에 따르면 쇠 조각을 문진 파편과 덩어리 등을 발사하며 개방된 공간의 적군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 주요한 전략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리적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속도를 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출발과 도착 지점 사이의 거리 파악이 필수불가결했지만, 현재처럼 고도로 발달된 첨단 과학은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 사용된 측정법은 바다에서 섬을 바라보는 거리를 계산하는 ‘망해도술’이었다.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망해도술은 물과 물 사이의 거리를 모두 측정해 정확한 거리의 파악이 가능했다. 이때 직선과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의 직각삼각형 속 닳은 삼각형 간의 비율을 이용하는 것으로, 닳은 삼각형의 ‘닳음의 비’를 이용해 하나의 계산으로 다른 길이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다. 시작점(섬)에서 다른 꼭짓점(배까지) 거리를 파악한 후 이를 바다의

다른 지역(적선)에도 적용한 것이다. 김형원(천종현수학연구소) 집필팀장은 “실제 전쟁에서 망해도술이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진영에서 싸웠다는 이점이 있었다”며 “미리 한산도 지형을 파악한 후 계산된 사정거리 내에 들어온 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한산에 진을 친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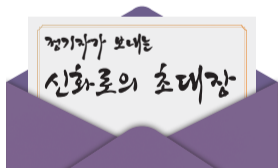
아무리 견고한 배와 날카로운 포격이 갖추어진들 해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요소는 해류였다. 더불어 유연한 전술 기동을 위해 바다 위에서의 방향 전환이 용이해야 했으며, 이는 배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됐다. 한산도 대첩 당시 왜군의 배는 백병전을 준비했기에 최대한 많은 병사를 빠르게 나를 수 있어야 했다. 더불어 정면에서 부딪히는 파도를 잘 가를 수 있도록 배밀이 뾰족하고 가벼운 형태를 유지해 빠른 기동성을 확보했다. 강 본부장은 “당시 왜군이 사용한 배는 ‘아타케부네’와 ‘세키부네’로, 가벼운 무게와 뾰족한 배밀의 구조”라며 “이는 이동에 용이했지만 전쟁 중 방향 선회 등의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선이었던 거북선과 판옥선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기에 먼 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었다. 장거리 이동 대신 방향과 전술의 재빠른 변화가 필요했기에 유연한 변동이 가능한 배의 구조를 채택했다. 이에 평평한 배밀의 형태로 배를 제작하며 배의 방향과 진영을 순식간에 바꾸는

방향을 택했다. 제 소장은 “당시 적선과 아군의 수적인 차이에도 전술을 위해 빠르게 진영을 바꿀 수 있는 배의 구조가 성공적인 전투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유동적 움직임이 보장된 상황에서 한산도 대첩에 사용된 전술은 ‘학익진’이다. 학익진은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을 진(陣)으로 나타낸 전술로, 수비하는 입장에서 공격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유인을 통한 수적 열세의 극복이 학익진의 첫 발 걸음이었다. 선회가 어려워 일단 유인에 성공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왜군의 특징을 고려해 진을 친 장소로 적군을 이끌어낸 것이다. 반면 학익진을 펼친 우리나라 배는 방향의 선회가 용이했으며, 이 때문에 전투 초반 전방을 응시하던 뱃머리를 옆 방향으로 선회하며 극적인 진형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 화포가 달린 배 측면이 왜군을 바라보는 진형으로 바뀌며 수적인 열세의 극복은 물론, 도리어 왜군이 격추 가능한 범위 내에 응집된 상황이 가능했다. 홍 연구사는 “왜군의 배와 달리 방향을 쉽게 틀 수 있다는 장점은 적군을 유인하다 순식간에 공격진으로 변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소장은 “한산도 대첩하면 거북선을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당시 거북선은 단 두 대뿐이라 학익진 양 끝에서 진영을 지키는 역할 정도만을 수행했다”며 “결국 한산도 대첩은 수적 열세를 극복한 과학적 요소와 전술의 승리였다”고 전했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고조선의 기원을 찾아가는 길, ‘단군신화’

중·고등학교 시절 역사 교과서에서 ‘건국신화’를 자세히 배워 본 적 있는가. 혹자는 역사는 본질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에 기초하므로 역사 과목에 허구의 이야기인 신화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건국신화에는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 대중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대해 서영대(인하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는 “건국신화는 과거 사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익숙하고, 널리 알려진 건국신화는 단군신화다.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과정이나 당대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재해(국립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명예교수는 이를 “고대 국가의 건국사는 모두 신화로 서술돼 있기 때문에 건국신화는 국가의 시작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단군신화를 서술하고 있는 서적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유사』다. 『삼국유사』 속 단군신화는 하늘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뜻(홍익인간)을 품고,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이후 ‘신시(神市)’라는 집단을 만들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 360여 가지의 인간사를 주관한다. 그때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환웅을 찾아가다. 환웅은 이들에게 100일간 숙과 마늘만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 일러준다.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곰은 숙과 마늘만 먹으며 여자가 되는 데 성공하는데, 그가 바로 ‘웅녀’다. 이후 웅녀는 환웅과 혼인해 단군을 낳는다. 단군은 고조선을 세우고 1,500년간 통치한다. 이후 단군은 산신으로 승천하고 신화는 끝난다.

단군신화 속 여러 등장인물에 대해 자세히 뜯어보면 많은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다. 환웅은 하늘신을 대신해 지상으로 내려오고, ‘신시’라는 자신만의 집단을 만들어

지도자로 군림한다. 하늘신의 대리자로서 사람의 땅에 내려와 집단을 만드는 일은 건국신화 속 건국자의 주요한 특징이다. 환웅에게 이같은 건국자적 면모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가 단순히 단군의 아버지로서 상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웅 또한 단군처럼 신시의 건국자인 것이다. 동아시아의 다른 여러 건국신화에서 건국자의 아버지에 대해 잘 언급하지 않는 것과 달리 단군신화에서는 환웅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임 교수는 “신시라는 국가가 명시돼 있고, 환웅이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까지 지닌 것을 통해 고도 건국시조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웅은 또한 자연세계와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졌다. 그는 360여 가지의 인간사 중 곡식·수명·질병을 직접 주관했다. 곡식과 수명 같은 개념은 고대에 사람의 일어난 자연세계의 일로 이해됐다. 자연세계와의 교감 능력은 지도자로서 환웅에게 정당성과 권력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조원진(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연구교수는 “환웅이 자연세계의 일까지 주관한 것은 그가 세속적 권위에 더해 초월적 영역과 통할 수 있는 종교적 권능을 갖춘 권력자임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한 단군신화에서는 토테미즘적 요소도 찾아볼 수 있는데, 토테미즘이란 특정한 자연물과 집단이 혈연관계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믿음이다. 곰과 호랑이를 이러한 자연물의 흔적으로 본다면, 곰과 호랑이를 조상으로 삼는 집단이 각각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는 “고조선을 구성했던 하나의 부족으로 이해되는 예족(濊族)의 여러 풍습 중 호랑이를 숭배하는 의식이 있었고, 이것이 호랑이 토테미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이어 “신석기 시대 이래로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에서 곰 숭배 신앙이 보편화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테미즘을 중심으로 곰에 대한 내용을 해석한다면, 웅녀는 곰을 숭배하는 집단의 대표이고, 환웅과 웅녀의 혼인은 환웅의 신

시 집단과 ‘웅녀 집단’의 결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집단 간의 통합과 확장이 이루어졌고, 단군은 확대된 큰 집단의 지도자로 등장한 것이다. 조 교수는 “『삼국유사』 등에서 환웅과 웅녀의 혼인 이후에 단군의 개국이 서술되고 있는 것은 환웅의 신시 집단과 웅녀 집단이 통합해 단군의 집단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확장된 세력을 기반으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견해의 근거”라고 이야기했다.

역사학자들은 신화는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군신화를 만든 측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고조선 왕권의 강화를 이루려 했다. 이정빈(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신화 속 단군의 부계가 하늘신인 것은 고조선 왕의 권위와 통치 정당성을 설명한다. 단군신화는 왕권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진정 오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대학인가

교내 안전설비 관리에 미흡한 구석이 드러났다. 2년 넘게 지속된 비대면 체제로 대면수업과 활동이 낮은 학생들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안전설비 문제는 단 하나의 문제라도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비대면 체제일 때보다 높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더는 안전 관리를 미룰 수 없다. 이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선무의 과제이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7월, 모 대학 캠퍼스 내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을 봐도 대학이 안전 관리에 힘써야 할 까닭은 충분하다. 심지어 본교는 지난 4월 경미한 화재를 겪은 바가 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소화기, 방화셔터, 방수용기구함 등의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학기에 예정된 대동제 및 MT 등의 행사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학본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타 대학에 견주어 보았을 때도 본교 안전 실태가 우수하다는 맥락이었다. 심지어 취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다. 본사의 취재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보다, 실제로 마음으로 개강을 맞이한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물론, 취재 시작과 동시에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사용 연한이 지난 소화기의 교체가 이뤄졌고,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자리를 방해하던 책걸상의 위치는 깨끗이 치워졌다. 보호 유리를 깰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될 뻔했던 자동심장충격기(AED)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망치가 추가로 비치될 예정이다. 다만 이처럼 단순한 장비 교체만으로는 대학본부의 안일함이 완치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꾸준한 점검과 실질적 교육으로 완벽한 체질 개선을 이뤄야만 진정한 학생의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교체된 '2022년 제조 소화기'가 2035년에 발견되는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참고로 소화기의 사용 연한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다.

취재 직후 소화기를 교체하는 등 빠른 대처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문제는 이것이 '대처'라는 지점이다. 신문사 취재에 대한 대처, 사용 연한이 지나지 않은 소화기가 비치돼 있다는 당연한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가. 만약 본지의 취재가 없었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지 모르는 일이다.

'오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대학' 우리 대학의 슬로건이다. 자고로 생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다. 만일 자신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천국인들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을까? 슬로건처럼 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에 철저히 하고 진정한 보금자리로 거듭날 우리대학의 노력에 미리 응원을 보내본다.

한혜정 편집국장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제10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이자 제1556차 수요시위가 지난 10일 진행됐다. 시위대는 청계광장부터 평화로까지 행진 후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이후 정부는 2017년 피해자들을 기리고자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다.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후 피해자들은 30여 년간 일본에 사죄를 요구했으나 당국은 '위안부'에 관련된 과거를 가리기 급급했다. 일본 정부는 지우고 싶은 그날들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기자수첩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개교 50주년 기념 자기개발 특별장학금(이하 특별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학기의 경우, 특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등록·이수 학점별로 차등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장학금은 12학점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10~15만 원부터, 6학점을 수강하는 학생은 120~150만 원까지 적은 학점일수록 많은 등록금을 되돌려 받는 형식이다.

이 때문에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특별장학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1학과와 달리 2학과에는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을 위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이 사라졌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특별장

말할 수 없는 비밀

학금이 '오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대학'이라는 슬로건의 일환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중도탈락률'을 줄이기 위해 수강학점만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중도탈락률이란 재적학생 중 미등록, 학사경고 등의 이유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대학평가에서 비중 있는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선 이러한 중도탈락률을 관리해야 한다.

성적·소득분위와 같은 기준이 아닌 학생이 학교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별장학금은 취업 및 자격증 준비 같은 자기개발을 학업과 병행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하게 한다. 학생의 자기개발을 위한 다른 방안 대신 단순히 수업을

적게 수강하게 함으로써 중도탈락률 막는 조치다.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재학 인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의 휴학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불 여지도 다분하다. 휴여나 반수에 실패할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학점이 부족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솔깃한 제안이다.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본교가 장학금을 마련한 취지는 좋았으나 중도탈락률 막기 위한 학교의 의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대학이 진정으로 학생이 머물고 싶고,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자 했다면 중도 취업자 혹은 자기개발을 원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과 특강을 개설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땠을까.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낙산에 올라

표절 논란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음악, 그림과 같이 창작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표절 논란은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논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 할까?

2022년 7월 14일 중국 SNS에 유명 브랜드 '디올(Dior)'의 치마가 중국 전통의상인 '마면천(馬面裙)'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중국 유학생들은 디올 본사 앞에서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디올은 논란이 된 치마를 중국 내 사이트에서만 삭제하고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오히려 시위를 벌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올해 2월 개최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떠올려보자. 개막식을 봤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의상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한 중국인 여성이 한복을 입고 땀기 머리를 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치 중국의 전통의상인 것처럼 당당한 태도를 지니며 등장했다. 상모돌리기, 율놀이, 김장, 강강술래 등도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여 우리나라 국민은 허탈함을 느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내비쳤다. 처음 소개한 디올 표절 논란 사례와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을 동시에 살펴보면 중국이 표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으로 보인다.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르겠지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표절 논란이 일어났

을 때 우리는 창작물의 유사함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닌 양쪽 측의 대처와 태도를 함께 중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내면과 함께 본다면 답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순수한 창작자들이 오해받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창작자 또한 논란이 일어났을 때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자신의 작품을 지킬 수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창작물이 있기에 우연한 유사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표절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그 작품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자.

허주영(패션 1)

■ 의화정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할까?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할까? 학생들에게 책 읽기의 중요성, 그중에서도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이유를 되묻는다면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 환상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칼비노는 '왜 고전을 읽는가'라는 책에서 이에 대해 14가지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그 이유 중 가장 설득력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인지하게 해 주는 매력'이다. 고전은 작품에서 설정된 사회적 환경과 인간관계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통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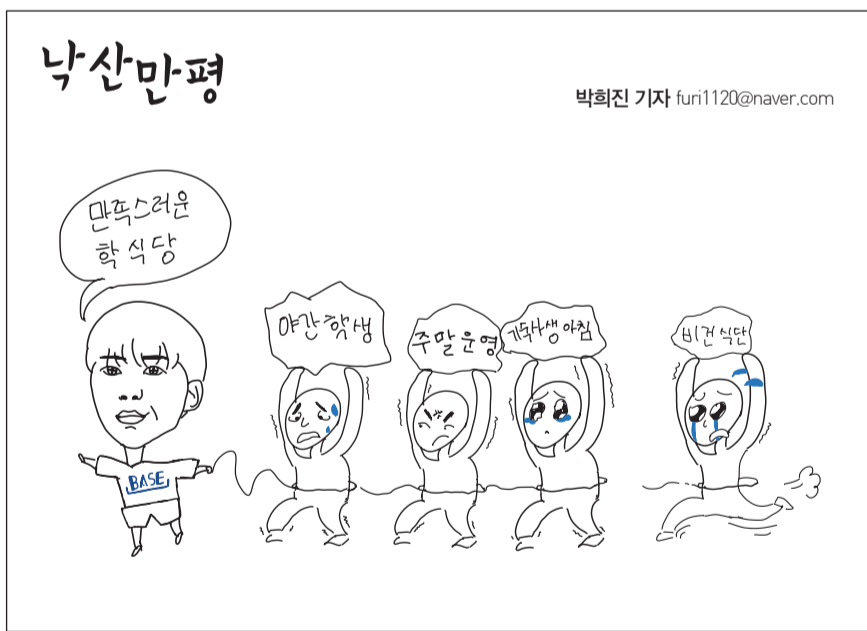
진부한 예시일 수도 있지만 펀드매니저 조지 소로스는 성공의 비결로 고전을 읽으

면서 배운 철학적 이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을 꼽았다. 고전에서 제시하는 시간의 흐름을 관통하는 아이디어들 긴 호흡으로 들여다보고 성찰하면 현재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기술과 기기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잘나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조각들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을 기피하고 문해력이 약해졌다. 고전 읽기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문해력을 키우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이렇게 고전의 중요함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최근 필자가 내린 조금은 씁쓸한 두 가지 결정 때문이다. 하나는 공공행정학과 법&정책트랙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

그램인 '사회과학 고전읽기'가 코로나 이후 광장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 개편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트랙교과목인 공무원을 위한 행정학에서 계속해오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북프로젝트의 중단이다. 여태까지 이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나 칸트의 정언명령이 현대 행정과 정책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논의하였다. 어렵지만 이해해 봤을 때의 성취감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식의 발견을 대체할 수업 콘텐츠를 고민하면서 더욱 고전이 주는 힘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이 이 힘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지성(사회과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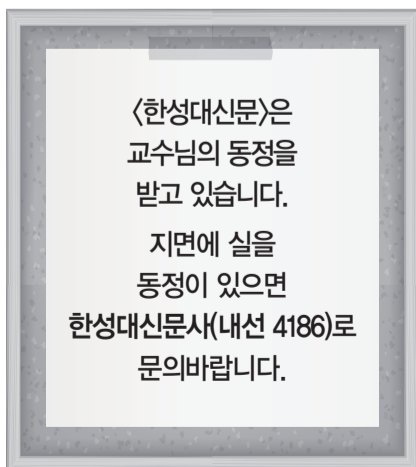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기자사령

임
편집국장 한혜정(사회과학 2)
부장기자 김기현(인문 2)

면
편집국장 신혜림(인문 3)

퇴
부장기자 임혜은(인문 3)
정기자 강승원(IT 1)



한성을 지켜나갈 다음 서술자는 당신입니다

한성대신문사에서 제53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자 우대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 촬영
- 레이아웃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평가회의

지원방법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활동지원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일간지 및 주간지 제공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모집기간

9월 2일(금) 23시 59분까지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